

“민생 안정 · 시민 안전 확보 철저”

우범기 전주시장, 윤석열 파면 직후 주요 간부 공무원 긴급간부회의 갖고 공직자들에 주문

우범기 전주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모든 전주시 공직자들이 민생 회복 지원과 철저한 시민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4일 현재의 탄핵 선고 직후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실·국장장과 완산·덕진구청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우시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후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전주시 모든 공직자는 민생안정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위처에서 근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시장은 모든 전주시민이 지속되는 사회적·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민생경제 회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4일 현재의 탄핵 선고 직후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실·국장장과 완산·덕진구청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복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 시장은 혼란한 시기에 더욱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탄핵 선고에 따른 대규모 집회 등에 대응해 인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한 안전관리에 임해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이와 함께 탄핵 선고로 인해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제한되는 사항들을 함께 짚어보며, 전 직원이 정치·직업 중립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공직자강을 확립해 모범을 보여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은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날로, 지난해 연말부터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탄핵 인용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만큼, 전주시도 시민의 가까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모집

글로벌 모션 테크놀로지 기업 세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가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EVERGREEN)’ 12기를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에버그린 12기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국의 대학 재학생 및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절차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총 14명이 최종 선발된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24일 발표되며, 면접 전형은 26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12기 활동 기간은 5월부터 8월 까지로, 참가자는 5월 발대식과 사전 교육을 거친 후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2019년 이후 6년 만에 해외 봉사활동이 재개되며, △화재 피해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게르 설치) △화재 및 화상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등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단체복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봉사활동 종료 후에는 VMS 봉사시간 인증과 수료증이 제공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세플러코리아 입사 지원 시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세플러코리아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완주~전주 잇는 옛 만경강 철교 보행로 설치

완주·전주 상생 철길 조성사업 추진... 역사문화공간 탈바꿈

일제 수탈의 역사를 시작으로 지난 100년 가까이 만경강을 사이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가로지르며 기차가 오가던 폐철교가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완주군과의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완주~전주를 잇는 만경강 중심에 위치한 옛 만경강 철교를 활용한 ‘완주·전주 상생 철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가 체결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협약(9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4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옛 만경강 철교 위에 약 475m의 보행로를 설치하고, 시는 전주 방면 화진동 969-1번지 일원에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을 정비해 전주 방면에서도 만경강 철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시는 철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꾸준히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올해 조성을 완료하



일제 수탈의 역사를 시작으로 지난 100년 가까이 만경강을 사이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가로지르며 기차가 오가던 폐철교가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옛 만경강 철교는 지난 1928년 건립된 역사적 유산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하는 데 사용됐다.

이후 지난 2011년 마지막 철도 운행을 마치고 폐철교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옛 만경강 철교에 간직된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20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총면적 2487㎡의 만경강 철교는 현재 완주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비비정에 술설차와 연계해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양 시·군은 이번 철길 조성사업을

통해 완주·전주의 특색있는 관광 자원을 함께 개발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완주·전주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생 철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만경강을 가로지르는 만경강 철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더 많은 전주 시민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완주군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 혜택이 양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올해의 책’ 필사 릴레이

시, 21일까지 참여 첫 주자 100명 공개 모집

책의 도시 전주시가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 ‘2025 전주 올해의 책’을 읽고 필사하는 릴레이 독서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tbook.kr)을 통해 ‘2025 전주 올해의 책’ 필사 릴레이에 참여할 첫 주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필사 릴레이는 ‘2025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세상(강경수 저, 창비) △베코 페어 내기 프로젝트(김근혜 글·김다정 그림, 개안나무) △페이스(이희영 저, 현대문학) △어른(김소영 저, 사계절) 등 총 4권의 책 중 신청한 독서를 읽은 후,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구를 자유롭게 릴레이로 필사하는 활동이다.

첫 주자는 신청 부문 도서와 노트를 가까운 시립도서관에서 수령하고, 책을 읽고 필사한 뒤 전주독서대전 누리집 내 ‘필사 릴레이 코너’에 한 줄 평과 다음 주자 알림을 남기면 된다. 이후 다음 주자도 같은 방식으로 20일 이내에 도서와 노트를 전달하면 된다.

필사 릴레이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주자는 운영 종료일 전까지 가까운 시립도서관으



로 도서와 노트를 반납하면 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올해 진행되는 필사 릴레이가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필사를 통해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며 더 깊게 책을 사용하고 나누는 ‘책 읽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활동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서의 재미를 일깨우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전주 올해의 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도서관본부 책문화산업팀(063-230-185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전통한지 원료 국산화 ‘속도’

다나무 재배지 익산지역까지 확대... 식재 행사 가져

한지의 본고장인 전주시가 다나무 재배지를 익산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전통한지 원료의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지방환경청, 익산시, 한국환경정보지원(원장 신진수),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전주문화재단(대표 이사 최락기)은 지난 4일 익산시 왕궁면에서 다나무 식재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식재 행사는 지난해 7월 체결된 전북지방환경청-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익산시-신협중앙회간 ‘왕궁 속사 매입지 다나무 식재 및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결실로, 전주시를 비롯한 참여기관은 6092㎡ 부지에 약 5000주의 다나무를 함께 심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과 익산시는 다나무 식재 부지 제공 및 묘목 관리를 담당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또 전주시는 다나무를 수매해 한지 원료로 사용하고, 신협중앙회는 다나무 묘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익산 왕궁지역 다나무 식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한지 산업을 되살리고, 한지 원료 국산화를 통한 전통보존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전통한지 원료 국산화를 위해 다나무 재배능가를 지원하는 등 원료 자급과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재배지역을 익산 왕궁까지 확대하면서 자급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일면 5칸·일면 4칸이며 지붕은 일면에서 볼 때 이집탈(A)과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일면 2칸·일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단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